



농약업계, 수재민 지원에 앞장

**동부한농-3000만원 상당 농약 지원, 현장 복구활동도
경농-1200만원, 동방-1000만원 각각 KBS에 기탁**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생활터전과 수많은 재산을 잃은 수재민을 돕는데 농약업계가 발 벗고 나섰다.

(주)동부한농(대표 최성래)은 이번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 중부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수해복구활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적인 봉사활동을 전개(사진)하고 있다. 중부지역본부 소속 임직원 약 30여명이 지난 25-26일 양일간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일대에서 수해복구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영남지역본부 소속 50여명이 지난 25일 경남 진주시 대곡면에서, 충청지역본부 소속 40여명이 지난 26일 충북 충주시 일대에서 수해복구활동을 전개했다.

동부한농은 또 장마철 주요 농약인 솔라자



액상수화제, 명타자 유탁제, 장타 액상수화제 등 주요 약제 3000만원어치를 수해농업인들에게 기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경농(대표 이병만) 임직원은 지난 7월 28일 KBS에 1200백여만원을 기탁했고 이에 앞선 7월 21일에는 (주)동방아그로(대표 염병만)가 KBS에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수재민을 돕기 위한 농약업계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다.

논제조제 지역적응시험, 현지 중간평가회 마쳐



수도용 제조제 등록을 위한 지역 적응시험 현지 중간 평가회가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으로 업계 시험담당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 차례(1차 6월 14~16일, 2차 7월 10~12일)에

걸쳐 시험 현지포장에서 개최됐다. 토질과 기후 조건이 다른 지역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약효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 시험은 제조회사 부설연구소 주관으로 매년 남부내륙 이모작 지대 및 남서해안 간척지대 등 5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험은 또 10월 말경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농약품목 등록자료 및 라벨(포장지) 주의사항 표기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농진청, 지베레린도포제 밀수입업자 고발

부정농약 유통 19건, 부정비료 과대선전 13건 등

중 국에서 밀수입한 지베레린 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과 5월경 신고센터에 밀수입농약을 유통 판매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를 집중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밀수입한 지베레린 도포제(상표 적매산도포제)를 유통시킨 경북 김천시 모암동 소재(한림농산)과 평택시 비전동 소재(대성건축) 등 2명의 밀수입업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료관리법에는 무등록 농약을 수입,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 44개 시군 338개 농약·비료 판매업소에 대한 교차합동단속 결과, 부정농약 19건, 부정비료 22건 등 총 41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부정농약의 경우에는 무등록 농약 1건,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9건, 취급제한 기준위반 7건, 등록기준위반 2건 등이다.

부정비료는 무등록비료 2건, 과대선전비료 13건, 보증기간 경과비료 4건, 보증표시 위반 비료 3건 등이다. 이들 적발 판매업소는 해당 시도에서 행정처분 및 사법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2006/2007동작물 농약 등록시험 설계심의회 개최



동계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우수농약 개발을 위한 2006/2007동작물 농약품목등록시험 설계심의회가 지난 7월18일 한국작물보호협회 주관으로 aT센터에서 열렸다.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및 생장조정제 등 분야별 시험전문위원과 제조업체 기술개발 담당부장 및 부설연구소 시험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심의회에서는 약종별로 △살균제 50항목 △살충제 54항목 △제초제 및 생장조정제 13항목 등 총 117항목에 대한 설계심의회가 있었으며 시험설계 내용 설명과 시험전문위원의 의견발표가 있었다.

경농, 창사 49주년 맞아 윤리경영 선포





분제농약, 오용사고 없앤다

농진청·업계, 추가안전관리 대책 마련

분 제농약의 오용사고 근절을 위한 추가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기술원 관계관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해당 농약 제조사는 지난 7월 14일 농진청에서, 분제농약 오용사고 관련 대책 협의회를 갖고 최근 분제농약을 밀가루로 오인, 부침개를 만들어 팔아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향후 분제농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 안전관리 조치내용을 보면, 제품자체에 검은색을 내는 색소와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악취제, 잘못해 먹었을때 즉시 토하도록 하는 구토제를 추가 사입함으로써 밀가루와 확연히 구별토록 하고 취급제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기존



리후렛을 보완, 배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체농약을 개발, 기존 제품을 폐지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한편 농약업계는 지난 2003년 당시 기준으로,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99.8이전 생산분) 농가보유 잔여농약과 전국의 농약판매업소의 보관 농약에 대해서는 시가로 현금을 보상해 주거나 다른 저독성 농약으로의 교환을 조건으로 모두 수거하고 그 이후 생산분에 대해서는 반죽시 색깔이 변색되도록 청·적색소를 첨가하는 한편 포장지를 PE포대에서 「은박포장지」로, 바탕색을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이면에 「농약」이란 경고문구를 적색고딕체로 크게, 「음식물에 사용금지」라는 그림문자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농약포장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바 있다.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은 지난 7월 12일 한국증권연수원에서 창사 49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윤리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윤리경영 선포식에서는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고객 및 종업원, 협력업체 그리고 주주들과 함께 21세기 일류기업으로 성장하고 경영성과 및 기업 가치를 다 함께 공유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다짐했다.

이병만 대표이사는 이날 가진 기념식에서 "FTA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농업시장개방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농업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런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윤리, 환경, 혁신, 창조경영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작물보호協, 소비자대상 농약안전성 강의 실시

약 80여명 참석, 7. 19 전국주부교실중앙회서

한 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지난 7월 19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개설, 주부대학 수강생 80여명을 대상으로 농약 및 우리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평소 농산물 구입과정에서 농약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송병훈 박사는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개발과 안전성 평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절차 및 농약의 분해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며 흥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의구심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해부터 농약 및 국내 농산물 안전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약사용으로 인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보다는 농산물중 농약잔류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보고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집중 실시 중에 있다.

동부한농, 농업인 곁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고객지원실 출범 및 고객서비스 대폭 강화



기업들의 고객만족·고객감동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도 고객만족 경영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농업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동부한농(대표이사 최석래)은 지난 7월

초, 분산되어 있던 고객서비스 관련 부서를 통합, 고객지원실로 확대 개편하고 대대적인 고객서비스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즉, 모든 업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고객지원실내에 상품개발업무와 기술서비스 업무를 크게 강화하였다. 대부분 기업들은 상품개발업무를 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반해, 동부한농은 고객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고객지원실내에 상품개발부서를 두고 관련업무를 전



일본농약공업회, 신임 회장에 窪田隆一氏



일 본 농 약 공 업 회 (JCPA)는 지난 7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에는 窪田隆一氏

(61·삼공아그로 사장·사진), 부회장은 高橋毅씨(일본 曹達 상무)와 大内脩吉氏(일본농약 사장)가 각각 취임했다.

이번에 취임한 신임 窪田隆一 회장의 주요 이력을 보면 △1945년 4월생 △와세다 대학 법학부 졸 △1968년 4월 삼공(주) △2001년 12월 아그로 사업부장 △2002년 4월 아그로 Company대표 △2003년 4월 삼공아그로 (주) 사장(取締役) △2005년 5월 농약공업회 부회장 △2006년 7월 농약공업회 회장 △취미는 골프, 독서 등 다채.

문화·세분화한 것이다. 또한, 상품 상담 및 A/S 업무 강화를 위해 고객지원실 산하에 전국 4개 권역(중부, 충청, 영남, 호남)별 기술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사 상품의 상담에 그치지 않고 파종부터 생육관리, 병해충 관리, 수확후관리까지 영농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인원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영일케미컬, 금학리 마을과 '자매결연 체결'



(주)영일케미컬(대표이사 김용구)이 최근 범 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사랑 1사 1촌 자

매결연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경북 영 양군 입암면 금학리 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 을 체결하였다. 지난 7월 11일 자매결연을 맺은 금학리 마을은 42가구 65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로는 벼, 고추, 엽연초, 사과, 기타 잡곡 등을 재배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특히 이 마을은 고추가 전국농산물품평회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차지할 만큼 소문난 곳이며 통일신라시대의 봉감모전 5층석탑(국보 제187호)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민가 연못인 서석지 등 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영일케미컬측은 "금번 자매결연을 체결한 금 학리 마을은 충청도권에 2개, 전라도권 및 경상 도권에 각각 1개 마을에 이어 4번째 맺은 자매 결연 마을"이라면서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지속 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다 활발한 도농교류를 전 개, 농업·농촌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물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촌사랑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